

필리핀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1
VI . 종합의견	12

필리핀

I.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GDP	1,441억 달러(2007년)
인구	91.1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582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달러당)	41.4(2007년 말)

-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동, 니켈, 임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9,100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임
- 지역간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사회의 불안 발생 소지가 잠재되어 있음. 2001년 1월 아로요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방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혁, 빈민계층의 소득향상을 겨냥한 경제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4.9	6.4	4.9	5.4	7.3
재정수지 / GDP	-4.6	-3.9	-2.7	-1.0	-0.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6.0	7.7	6.2	2.8

자료 : IFS, EIU

□ 2007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 시현

- 2005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 고유가 현상 및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4년 6.4%에서 4.9%로 둔화되었으나, 2006년에는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활성화, 농산물 작황 호조, 소비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까지 상승하였음.
- 2007년에는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9.1% 성장 시현 등으로 인해 최근 31년 중 가장 높은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도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5.4%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감소 추세 유지

- 2006년 초에는 고유가 현상과 동년 2월 부가가치세 2% 인상 등의 영향으

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식료품비 인하 등으로 2005년 7.7%에서 6.2%로 감소하였음.

- 2007년에는 식료품비 하락세가 이어지고, 폐소화 강세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2.8%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나, 2008년에는 폐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식료품비 및 유류비 상승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감소 추세

- 동국은 세수기반 취약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0.1%, 2008년 -0.2%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류 등의 높은 수입 비중

- 유류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고유가는 필리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급등(2004년 6.0%, 2005년 7.7%, 2006년 6.2%)과 경제성장률 저하(2004년 6.4%, 2005년 4.9%, 2006년 5.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외 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성 심화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상태이나, 해외 근로자의 송금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필리핀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과

다하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거주가 집중된 국가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출구조의 취약성

- 총 상품수출(465억 달러)에서 전자제품 수출(296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으로 63%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총 수출의 약 35%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는 개선추세에 있으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과 단기외채 비중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에 경제개발 등에 발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외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 풍부한 광물자원과 인구 9,100만 명의 큰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소득 불균형 등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인도와 전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1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약 11만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다. 정책 성과

□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개선

- 필리핀의 재정수지/GDP 비중은 세수기반 부족과 각종 조세징수 체제의 미비 등으로 2002년 -5.3%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2002년 이후 아로요 정권의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에 힘입어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완화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재정수지/GDP 비율이 -1.0%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0.1%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세수증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현재까지의 경제 개혁 속도는 아로요 대통령이 집권 초기 약속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 관련 제반 법률을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있어 다소 성공적이라 판단됨.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되었고, 2005년 6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상수지	288	1,628	1,984	5,897	7,273
경상수지 / GDP	0.4	1.9	2.0	5.0	5.0
상품수지	-5,851	-5,684	-7,773	-6,817	-7,056
수출	35,339	38,794	40,263	46,526	49,784
수입	41,190	44,478	48,036	53,343	56,840
외환보유액	13,655	13,116	15,926	20,025	30,213
총외채잔액	62,589	61,095	61,718	60,324	61,647
총외채잔액 / GDP	78.6	70.3	62.5	51.3	42.8
D . S . R .	19.5	19.8	16.0	18.9	13.0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는 적자 기조 유지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2007년 수출은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지만, 고유가로 인하여 수입액도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가 2006년 대비 소폭 확대되었음.
- 한편,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1.2%, 7.9% 감소한 반면,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23.5%, 56.6% 증가하여 수출 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경상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경상이전 수지 증가, 관광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따라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2007년 73억 달러, 2008년 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 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140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외환보유액 수준도 월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2007년 6.4개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낮아

- 2007년 총외채규모는 616억 달러 수준으로 2003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나, GDP 및 총수출에 대한 총외채 비중이 각각 43%, 98%를 기록,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들어 D.S.R 및 단기외채 비중이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어, 단기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정부 전산화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의 정치적 입지 약화

- 2007년 10월 필리핀 정부가 중국 차관자금으로 추진한 정부기관간 전산망 구축사업(329백만 달러)과 관련해서 중국 ZTE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30백만 달러의 뇌물이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 호세 미겔 아로요와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입찰에서 탈락한 발렌시아 하원의장의 아들과 관계자들에 의해 폭로되었음.
- 이에 현 정부와 아로요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과 아로요 대통령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비리 폭로 책임으로 아로요 측근들에 의해 2008년 2월 5일 하원의장직에서 퇴진당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이 현 정권의 각종 비리와 2004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아로요의 정치적 기반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로요 대통령 3번째 탄핵안 부결

- 야당이 정부 전산화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3번째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2007년 11월 26일 절대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부결시켰음.
- 한편 탄핵이 부결된 뒤 1년 동안은 또 다른 탄핵안 발의가 금지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2008년 10월까지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 정권붕괴 가능성 낮아

- 정부 전산화사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지만, 핵심적 권력기반인 의회와 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아로요 이후의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2010년 임기까지는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민들이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둔감해졌고, 과거 2차례 민중혁명(People Power)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데 따른 실망감으로 다시 혁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정치적으로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루손 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민군(NPA) 등이 대표적 무장 과격단체에 해당됨.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정

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임.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음.

□ 이슬람 반군과 자치영토협상 타결

- 2007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MILF과의 자치영토 협상을 마무리지었음. 양측은 MILF의 자치권은 민다나오섬으로부터 해상 15km이내로 하고, 해상 자원개발은 필리핀 정부와 MILF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정 준수 감시를 위해 연합군 60명을 민다나오섬에 주둔시키는 것에 합의하였음.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대전 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세력들이 이주해오며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들 이슬람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3. 국제관계

□ ASEAN 회원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ASEA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양국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나,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의 국가들도 일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2006년 기준 전체 수출의 18.3%, 수입의 17.9%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음.
-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민다나오섬의 이슬람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해 동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음. 2008년 1월 16일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물자의 수송과 관련 서비스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황 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 지속

- 2006년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동국은 2006년 1월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하고 있음.
-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와 호전된 경제상황으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IMF 차관 중 37.6억 달러(잔액의 50%)를 2006년 6월 조기상환 하였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S.R 수치와 단기외채 비중이 개선되는 등 대외지급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사회 안정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엇갈리면서, 신용도 등급 움직임도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Moody's : Ba1(1997.5) => Ba2(2004.1) => B1(2005.2)
- S&P : BB+(1997.2) => BB(2003.4) => BB- (2005.1)
- Fitch : BB+(1999.7) => BB (2003.6)
- OECD. : 3등급(2000.1) => 4등급(2001.1) => 5등급(2004.4)
- Euromoney : 81/185(2006.9) => 81/185(2007.3) => 78/185(2007.9)
- I.I. : 75/173(2006.9) => 73/174(2007.3) => 70/174(2007.9)
- I.C.R.G : 87/140(2007.1) => 80/140(2007.7) => 84/140(2008.1)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V.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주요협정: 항공협정(1969), 경제기술협력협정(1985), 이중과세방지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96), 범죄인 인도협정(1996)

전통적 우방국으로 경제협력에서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양국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역은 '07년에는 수출 44억, 수입 2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도 '07년 12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2,580건, 927백만 달러를 기록 중임.

(단위: 천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3,219,714	3,930,517	4,420,334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 제품 등
수 입	2,316,037	2,186,564	2,438,257	전기장비, 기계류, 농산물 등

VI. 종합 의견

- 정부 전산화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에 대한 추가 비리 폭로 위협도 더해지며 아로요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음. 이에 따라, 아로요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야당에 의한 탄핵 시도도 있었음.
- 하지만 아로요가 핵심적 권력기반인 군과 의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아로요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정권이 붕괴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임기까지는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대, 정부의 투자 확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채관련 지표 개선, 외화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